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 발전 방향 논의

- 24일, 본청에서 ‘새마을운동 연계 농업기술 ODA 추진 세미나’ 개최
- 농업 기술지원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통합적 협력 모델 모색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6월 24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새마을운동 연계 농업기술 ODA 추진 세미나’를 개최하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새마을운동을 연계한 통합적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1970년대 우리나라 농촌 개발을 선도한 새마을운동 정신과 원리는 저개발국가들의 자립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 사업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개발국가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협력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있다.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국제개발 협력사업. 개발도상국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협력 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함

특히 코피아 라오스 센터의 ‘라오스 벼 종자생산 및 재배 기반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범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에 기반한 공동체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동체 교육 참여 주민들의 기술 수용 태도가 매우 긍정적으로 변해 기술 보급 효과가 극대화됐다는 게 현지 반응이다.

이날 세미나의 외부 연사로 참석한 박종대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 사업과의 협력 방안 및 기관 간 역할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제안했다.

(사)국제환경농업개발원 지형진 원장은 ‘농업기술 기반 농업·농촌 개발 ODA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올해부터 농촌진흥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농촌공동체 개발 프로그램’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새마을운동과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실제 저개발국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기술 지원과 더불어 주민역량 강화, 생활 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사업 효과가 더욱 커지고 지속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며, “농촌진흥청은 이를 위해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새마을운동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세미나 계획

담당 부서	기술협력국 국외농업기술과	책임자	과 장	이경희 (063-238-1160)
		담당자	사무관	이흥진 (063-238-1170)
				

□ **행사 개요**

- (목적) 새마을운동과 연계한 농진청 농업기술 ODA의 추진 방향 설정
- (일시/장소) '26. 6. 24.(수) 10:30~12:00 /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
- (연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박종대 교수, 국제환경농업개발원 지형진 원장
- (주요 내용)
 - 새마을운동중앙회 ODA사업의 이해 및 농업기술 ODA와의 연계 방안
 - 농진청 농업기술 ODA사업과 KOICA ODA사업의 사례(우간다) 공유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0:35	5'	- 행사개회	국외농업기술과 기획평가팀장
10:35~10:40	5'	- 인사말씀	농촌진흥청장
10:40~11:10	30'	- 새마을운동중앙회 ODA사업 소개	박종대 교수
11:10~11:40	30'	- 농업기술 ODA 사업 사례 공유	지형진 원장
11:40~12:00	20'	- 농업기술 ODA 발전 방안 토의	참석자(연사 등)

* 상기 일정 및 발표 세부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